

2002년을 빛낸 불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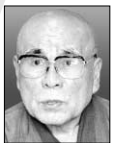
불교문화 복지 향상·수행환경 수호에 진력

한일 월드컵과 부산아시아경기대회,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 16대 대통령 선거 등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다. 불교계도 수행환경 수호가 올해 최대의 화두로 떠올랐고, 불교문화 등 전반적으로 한 층 성숙해

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런 가운데 환경, 인권, 복지, NGO 등 각 분야에서 발군의 노력으로 불교를 빛낸 불자들이 적지 않았다. 본지 기자들이 각 분야에서 '2002년을 빛낸 불자들'을 선정했다.

덕해스님(불교안양원 이사장)

서울불교대학원대 개교



불교안양원 이사장 덕해스님은 9월 1일 불교계 처음으로 불교 대학원대학교를 개교했고, 이에 앞서 8월 안양시 석수동에 1만2천

기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남쪽시설 영각당을 개원하기도 했다. 덕해 스님은 89년 학교법인 보문학원을 인수해 대전 보문중·고등학교를 운영하고, 2000년 안양시 노인복지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등 교육, 복지 등의 사업에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는 서울 금천구 독산동 1038-2번지에 연면적 530평,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개교 첫해인 올해 불교학, 상담심리학, 사회복지학 등 3개 학과생들을 모집, 불교의 사회적 구현의 가르침을 펴고 있다.

도우스님(청년 월령사)

신장에 이어 간까지 기증



경남 창녕군 월령사의 도우 스님은 지난 8월 21일 서울아산병원에서 말기 간경화 환자에게 간 일부를 떼어주는 보살행을 실천했다.

도우스님이 이 같은 장기기증 서원은 출가한지 1년 째 되던 98년 통도사 승가대학 학인시절부터였다. 불제자의 도리를 다할 수 있는 길을 고민하던 스님은 지난 99년 8월, 세브란스병원에서 신장 질환자에게 왼쪽 신장을 선물 내놓았고, 올 8월에는 간까지 기증했다. 스님은 장기기증과 함께 "간 기증 이야기가 많은 이들에게 알려져 장기 기증을 아타게 기다리는 환자들에게 장기기증의 선연이 이어지기를 바란다"는 마음도 보냈다.

육신에 대한 집착을 떨쳐버린 출가수행자로서 불교계를 넘어 일반사회에 신장에 이어 간까지 기증한 보살행을 감동을 불러 일으켰다.

도후스님(불교문화산업기획단 이사장)

근·현대불교미술 조명



지난 7월 불교문화산업기획단을 창립한 도후스님은 10월 17일부터 28일까지 서울에서 '아름다움과 깨달음-한국 근·현대 미술에 나타난 불교사상' 주제 전시회를 열었다. 이 전시회는 그동안 고미술

품이 대부분이었던 불교 전시 풍토에서 벗어나 20세기 본격 창작품 가운데 불교사상을 기본으로 한 명품을 한데 모아 놓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남겼다. 또 11월과 12월에는 경주, 속초, 광주 등에서 지방순회전을 열었으며 12월 13-14일 양일간은 강화 전등사에서 미술, 건축 등 각계 전문가 6명을 초청해 '불교문화관광 상품 개발을 위한 세미나'를 열어 본격적인 불교문화의 대중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도 했다.

전재성(한국배알리성전협회 회장)

초기경전 번역 주도



부처님 가르침의 원형에 가장 가까운 우리말 경전을 만들기 위해 애써온 한국배알리성전협회 전재성 회장은, 올해 <쌍웃다니까야>와 <맛지마니까야>를 펴냄으로써 초기 불교 경전의 한글 번역을 본 궤도에 올려놓았다.

올 1월 팔리어 대장경 가운데서도 가장 초기의 경전들을 모은 <쌍웃다니까야>전12권을 완역한 데 이어, 한문번역본의 중아함경에 해당하는 <맛지마니까야>를 처음으로 번역, 1·2권을 펴냈다.

이 초기경전의 한글번역은 한문으로 이종 번역된 이전의 경전과 달리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 보편적으로 쓰였던 언어로 된 팔리어 대장경 원전을 오늘날의 우리말로 해석해 석가모니의 육성을 보다 생생하게 접할 수 있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

수경스님(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

북한산·새만금 살리기



수경스님의 자연환경 보존과 사찰환경 수호 의지는 올해도 여전히 뜨거웠다.

북한산 관동도사가 풀립 지점에 '철마선원' 법당을 세우고 비구니스님들, 환경단체 회원들과 함께 몸으로 도로 건설을 막았다. 그러던 중 괴한들에게 집단 폭력을 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스님은 이에 굴하지 않고 '북한산 살리기 3보 1배 정진'을 병행하다 누적된 과로로 심신해 병원에 실려 가기도 했다. 또 새만금 갯벌을 살리기 위해 스페인 탐사에서도 '3보 1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연말에는 '미군 참화와 SOFA개정'을 위한 단식기도 정진에 돌기도한 스님은 북한산과 새만금 갯벌 살리기 운동으로 환경운동연합이 주는 녹색시민상을 수상했다.

주경중(영화감독)

'동승' 영화제 최다 초청



영화 '동승'을 제작한 주경중 감독은 한국사찰 특유의 자연경관을 영상에 그대로 옮겨 내년 3개 개봉을 앞두고 올해 최다 국제영화제 초청작이란 신기록을 세웠다.

'동승'은 6월 상하이 국제영화제 최우수 각본상 수상을 비롯해 하와이, 모스크바, 몬트리올 등 이미 20여개 유수의 국제영화제에 초청됐다. 특히 상하이 국제영화제에서의 수상은 93년 '서편제'로 임권택 감독이 감독상을 받은 이래 9년만의 영화계 경사로 평가되고 있다. 주감독은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가장 한국적인 정서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다 결국 불교적 소재를 선택한 것이 세계 영화 관계자들의 관심을 끈 것 같다"고 했다. 특유의 영상미로 한국 불교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널리 알렸다는 점에서 영상 포교에 큰 견인차 역할을 했다.

법륜스님(정토회 지도법사)

탈북자·인도불교 지원



법륜스님이 지난 7월 29일 '아시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라몬 마사아시아상 평화 국제이해부분 수상자로 선정돼 불교계 뿐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스님은 불교의 가르침을 토대로 정토회를 설립해 탐욕, 빈곤 및 환경파괴 등 근대사회 전반에 걸친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실천활동을 펼쳐왔다.

마사아시아상 수상으로 국제적으로도 저명인사가 된 스님은 아프가니스탄 등의 나라에 대한 지원에도 나서 자비와 평화, 생명존중의 사상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하고 있다. 지난 11월에는 1000일 동안 펼쳐온 한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위한 기도정진을 회향하며 불자들에게 자비사상을 각인시키기도 했다.

김태제(경기불교문화원장)

인도·티베트 적극 지원



지난해 티베트불교 지원금으로 10만 달러를 보시하며 해외불교 지원을 호소하고 나선 김태제 경기불교문화원장이 올해에도 인도

불교 지원금으로 10만 달러를 쾌척했다. 김 원장의 인도·티베트불교 관심은 참여불교재가연대가 추진하고 있는 인도 불교돕기 운동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18-23일 실시한 인도답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재가연대가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3곳 중 마하마야 아카데미에서 학생들의 학용품 구입비로 3,000 루피를, 석가족 6,000여명이 운집한 메인푸리 나비간지에서는 자신들의 힘으로 법당을 짓겠다는 마을의 불상불안 비용을 보시했다. 또 석가족이 중심이 된 YBS(인도불교청년회) 사무실 마련 비용과 동계스키리 수자타 아카데미 후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율스님(양산내원사 산감)

금정산·천성산 지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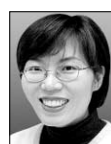
올 한해 천성산을 지키기 위한 일이라면 단식, 하루 25km 행군 등 어떠한 것도 마다하지 않았던 지율스님의 활동은 사경을 헤매는 자

식을 향한 어머니 사랑 그것이었다. 올해 2월 내원사 스님들과 함께 한 1200리 고속철 구간 도보를 비롯 천성산의 소중함과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행사를 기획, 직접 몸으로 참여했다. 수녀님들과 함께 한 길거리 음악회, 자전거 타기, 천인서명운동, 6박 7일의 천성산-금정산 순례, 부산시청앞 1인 시위, 단식, 거리 집회, 길거리 특강 등 찾아다니는 사람과 장소는 셀 수조차 없다.

11월 탐사회의에 참석해 천성산 화엄뉴턴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돌아온 스님의 노력은 지칠줄을 모르고 있다.

김선아(불교만화연구소 소장)

불교만화로 포교 기여



2000년 문을 연 불교만화연구소의 김선아 소장은 올해 교계 최초로 전국 규모의 '청소년 불교만화공모전'을 개최해,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만화가 이현세 씨가 심사위원장을 맡은 이번 공모전에는 500여 명의 청소년들이 단편만화, 일러스트 등 600여 점의 작품을 응모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올 7월 격월간 불교만화 포교지 <불교만화이야기>를 창간했다. 어린이와 청소년, 대학생 등 젊은 불자들에게 불교를 쉽게 전달하기 위한 '불교만화 이야기'를 어린이·청소년 법회와 군법당 등에 보내는 법보시 운동도 펼치고 있다. 불교만화 공모전과 포교지 발간은 불교만화 발전은 물론 포교와 작가 양성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해성스님(광림사 연화복지원장)

청각장애인에 새 삶



93년 광림사에서 연화복지원을 창립하고 수화법회를 열어 청각장애인 포교에 나선 해성스님. 청각장애인 포교 활성화를 위해 성가 정음스님과 함께 찬불가와 수화를 함께 배울 수 있는 모임 '부부나 수노회'를 지난 6월 창립했다. 또 휴대하면서 배울 수 있는 수화집 <수화사랑 친구사랑>을 만들어 청각장애인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이끌어냈다. 11월에는 10주년을 기념, 수화 연극 '사랑이 보이네요'를 열연해 열렬한 박수를 받았다.

96년에는 한국 유일의 청각장애인 운전면허 교육을 시작, 현재까지 300여명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다. 작년에는 장애인 취업 문제 해결을 위해 '꽃꽂이 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했다.

부산아시아게임 불교서포터즈

불심포아 열렬히 응원



부산의 올 가을은 불교계의 서포터즈 활동으로 물들었다. 9월 28일 전야부터 10월 14일 폐막까지 경기장과 선수촌 곳곳에서, 부산불교연합회를 주축으로 삼광사, 감로사, 해원정사, 동명법원, 영주암 등 30여 사찰과 신행단체들이 참여한 불교서포터즈는 불교문화를 34개 참가국에 알리며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치르는데 특목히 역할을 했다.

특히 선수촌내 설치된 불교관에서 다도체험, 참선, 예불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선수단의 입국부터 출국까지 한국의 불심이 가득 담긴 활동을 펼쳤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며, 그 가운데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10대 뉴스로 정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관과 동국대 불교병원이 완공되고 천태종립 금강대학교가 개교, 교육·포교·복지의 큰 축을 담당할 대작불사가 마무리됨으로써 불교발전의 새 기틀이 마련됐다. 불교역사문화기념관의 착공과 불교정보화 실태조사도 큰 성과였다. 법전스님의 조계종 총정 취임과 해암스님의 임직은 기대와 아쉬움을 동시에 던졌고, 월드컵과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처음 실시된 템플스테이는 한국불교의 국제화를 앞당겼다. 북한산 관동도로 등 사찰수행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1년 내내 지면을 뜨겁게 달구었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이 출가자 연령을 40세 이하로 낮추는 파격적 조치도 나왔다.

2002년 불교계 10대 뉴스

본지 선정

교육·수행·복지 대작불사 결실... 불교발전 새 기틀

조계종 제11대 종정 법전스님

조계종은 3월말 종정추대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법전스님을 11대 종정에 추대했다. 14살인 1939년 영광 불갑사에서 설제스님을 은사로 출가, 1949년 성철·정답스님 등과 함께 봉암사 결사에 참여했으며, 지난 85년부터 해인사에서 주석해오면서 96년 해인총림방장, 2000년 원로회의 의장을 맡아온 조계종의 대표적 선승이다. 한편, 조계종 제10대 종정 해암스님은 지난해 12월31일 법랍 55세 세수 82세를 일기로 해인사 미소굴에서 입적, 불교도들을 안타깝게 했다.



한·중·일 국제무차선대법회 첫 개최

한-중-일 동북아 3국의 선사들이 선문답을 펼친 '한-중-일 국제 무차선 대법회'가 10월 20일 부산 해운정사에서 선종사상 처음으로 열려 불교계 내외의 관심을 끌었다. '21세기 선(禪)으로 참나를 찾자'란 주제로 열린 이번 무차선법회는 1만 2000여 사부대중이 참석, 법주를 맡은 동화사 및 해운정사 조실 진제 스님과 중국 백립선사 방장 정해(淨慧) 스님, 일본 임제종 묘심사와 대표 종현(宗玄) 스님의 법어와 남자와 일반인을 상대로 법거량으로 진행됐다.



천태종립 금강대학교 개교

불교계 네 번째 정규대학인 천태종립 금강대학교가 11월 7일 개교했다. 충남 논산시 상월면 대명리에 건립된 금강대학은 대지 3만5천여 평에 건평 3천7백여 평 규모의 강의동과 기숙사 2동을 갖췄으며, 11월 16일 교육 인적자원부로부터 대학설립 인가를 받고 본격적인 학사일정에 들어갔다. '소수정예 특성화'를 교육지표로 내건 금강대학은 불교문화학부(불교학 전공, 동역학부(영어학·일어학·중국어학 전공), 사회과학부(사회복지학 전공) 등 3개 학부 5개 전공분야에 신입생을 선발했다.



조계종 출가 연령 40세 이하로

조계종은 9월 10일 제154회 임시중앙총회에서 출가 연령을 50세 이하에서 40세 이하로 낮추는 '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계종이 출가자 연령을 낮춘 이유는 고령 출가자에 대한 교육·수행·교화에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연령을 문제 삼아 출가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능력 있고 신심 깊은 40세 이후 출가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불교정보화 실태조사·협의회 구성

불교계의 정보화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를 지표로 드러낼 자료가 전무한 가운데 최초로 사찰과 단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가 펼쳐졌다. 4월 한 달 간 실시된 이 조사는 종단협의회와 불교방송, 불교TV, 현대불교신문사가 공동 주최했다. 전국의 5천여 사찰에 대한 전화조사와 1200여 사찰에 대한 방문 및 우편조사로 진행됐으며 7월 말 562쪽 분량의 <백서>가 발간됐다. 이 조사를 계기로 불교계 정보화 분야의 발전을 모색하는 불교정보화협의회(회장 현성)가 창립됐다.



플스테이는 한국불교의 국제화를 앞당겼다. 북한산 관동도로 등 사찰수행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1년 내내 지면을 뜨겁게 달구었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이 출가자 연령을 40세 이하로 낮추는 파격적 조치도 나왔다.

북한산 등 환경지킴이... '백지화' 투쟁

올해 불교계 큰 화두는 수행환경 수호였다. 북한산·수락산·불암산 관동도로를 비롯하여 금정산·천성산 경부고속철도, 미륵산 케이블카, 보문동 미타사, 양평 용문사, 용인 화운사 등 전국 곳곳에서 개발 논리에 따른 자연 파괴 및 사찰수행환경 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북한산 관동도로와 금정산·천성산 문제는 대선후보들에게서 전면재검토와 백지화 공약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찰환경 분쟁들은 종단이나 사찰이 뒤늦게 대처했다는 반성과 함께 근본적인 처방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관 완공

조계종 7천여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 포교, 교육도량인 전국비구니회관(법통사)이 착공 3년 만에 완공됐다. 전국비구니회(회장 광우)는 5월 4일 1천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법통사 만불전 봉불식을 갖고 30여년만의 숙원사업이었던 비구니회관 완공이란 결실을 맺었다. 서울 강남 수서동에 소재한 비구니회관은 대지 1천2백40평, 건평 2천5백60평에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의 현대식 건축물로 조성됐다. 대법당(만불전)과 교육관, 대강당, 강의실, 불교문화실, 도서관 등을 갖추고 있다.



최첨단 동국대 불교병원 준공

양·한방 1000병상 규모인 동국대 불교병원이 9월 27일 불자들의 관심 속에 준공됐다. 고양시 일산구 식사동에 건립된 불교병원은 건평 2만7천 평에 지하 2층, 지상 12층, 외래진료동, 입원병동, 중앙지원동, 장애동 등 4개동으로 이뤄졌으며 국내최초 무균실 전자동화검사시스템 등 최첨단 시설을 갖췄다. 하지만 '올해 12월 개원'이 2003년 말 개원으로 미뤄지면서 불자들의 실망과 직원 채용 응시자들의 불만 등이 겹쳐 교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착공

조계종의 숙원사업이었던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이 4월30일 기공식을 가졌다. 불교역사문화기념관은 총무원 새 청사라는 의미보다는, 한국 불교의 역사와 문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불사로 평가 받고 있다. 조계사 경내 1천4백여평 대지에 지상4층 지하4층으로 건립되는 이 기념관은 유물 전시실, 불교문화정보센터 등이 들어서며, 또 부속 건물로 건립되는 별관에는 최첨단 국제회의장이 들어선다. 완공은 내년 말로 예정 돼 있다.



월드컵 템플스테이 성공적 운영

한·일 월드컵과 부산 아시아 경기대회 때 실시한 한국전통불교 문화체험사업(템플스테이)은 외국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33개 사찰에서 실시된 템플스테이는 5천여 외국인들에게 전통문화 체험관광의 모델과 불교문화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불교유어 번역과 통역인력 확보를 통한 국제포교 기반을 구축했으며 상설화하는 사찰도 생겼다. 그러나 짧은 준비기간과 홍보부족 등으로 인한 참가자 부족으로 운영에 차질을 빚는 아쉬움 남기기도 했다.

